

삼성전자 협력업체 부실대출 경계령

금융권 마구잡이 제한에 우수 업체들까지 피해 우려

금융권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대한 부실대출 경계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출이 막히면서 건설한 기업마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칫 연쇄도산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최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1차 협력업체의 부도로 지역 금융권에 삼성 협력업체의 부도도미노 공포가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별 경영상태 등 육색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 협력업체에 대출 제한을 하면서 건설한 업체들마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협력업체의 사장은 최근 운전자

금 대출을 받으려 A은행 B지점을 찾았다가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무안을 당했다. 은행 관계자가 "삼성 협력업체에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이 사장은 "2~3년전만해도 1차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에도 아무 조건없이 대출해줬는데 노골적으로 거절당하다보니 회사 경영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도 "은행권에서 삼성 협력업체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출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실제 예금은 행들의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출이 2009년 4분기 이후 크게 감소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출은 2009년 3분기 11조3599억원에 달했다. 이후 2009년 말 10조9886억원, 2010년 말 10조3967억원으로 5분기만에 9632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10조7659억원, 3분기 10조9804억원, 4분기 10조8068억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예금은행들은 운전자금 대출을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분기 9조3704억원에 달했던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010년 1분기 8조5944억원, 2분기 8조2926억원, 3분기 8조2681억원, 4분기 7조8307억원으로 2년여만에 16.4%인 1조5397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7조89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지역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 기간동안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은 잘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감소는 대부분 삼성 협력업체에 가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예금은행들에 협력업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도 삼성 협력업체의 대출 경계를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예로를 전해 들었다"며 "불량 확보, 금융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두바이유 하락... 휘발유값은 101일째 고공행진 휘발유값이 101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기준 휘발유 평균가격은 6당 2061.83원으로 지난 1월 6일 이후 101일 연속 올랐다. 서울 시내 한 증권정보회사의 모니터에 표시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그래프. /연합뉴스

올 경제성장률 3.5%로 하향조정

한은, 실업률 낮아지고 경상수지 흑자 145억달러

한국은행이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수정했다. 한은은 16일 내놓은 '2012년 경제전망(수정)'에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3.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3.0%에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3.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3.2%에서 2.8%로 낮췄다.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커졌으나 교역조건이나 빠지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IT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기존 4.2%에서 6.2%로 높였다. 건설투자는 기존 예측치 2.8%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기존 예측치보다 0.1%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

원인플레이션은 3.3%에서 2.6%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2.7%에서 2.2%로 예상치를 낮췄다. 취업자는 35만명 늘어나 지난해 말 전망치인 28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업률은 기존 예상치보다 0.1% 낮은 3.3%로 추정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4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지난해 265억 달러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다.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축소돼 기존 전망치인 130억 달러보다는 흑자규모가 다소 확대됐다.

한은은 2013년 경제성장률이 4.2%에 달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취업자 수가 32만명 늘어나고 실업률은 3.3%로 전망했다. 2013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25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2분기 수출도 찬바람

코트라·삼성경제연구원...하반기 개선

1분기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2분기에도 분위가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전 세계 바이어 2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가 51.7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2분기에도 본격적인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동향을 토대로 수출경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50 이상이면 전 분기 대비 수출 호조, 50 미만이면 수출 부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수출 여건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수가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았던 1분기의 51.6에서 더 악화하지 않았다. 전 분기에 44.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수입국 경기지수도 5.4포인트 개선된 49.7을 기록했다. 바이어들이 체감하는 주재국 경기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신청 하세요

중기청 30일까지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FTA 체결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1년 이후 발효된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23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자금과 보증 우선 지원, 해외마케팅 등 86개 항목에서 대해 2년간 우대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FTA 유망품목을 제조·수출하거나 제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광주전남수출지원센터 062-360-919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출범...초대회장 황대영씨

사단법인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정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황대영(사진) (주)인포데이타 대표이사가 맡았다.

협회는 그동안 (사)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지회로 활동하다가 이번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오는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업프렌차이즈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황 회장은 "지역 벤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벤처기업인들의 교류 활성화와 공동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전자 "흡연 임원 승진 못해"

앞으로 담배를 피우는 삼성전자 직원들은 사실상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부품(DS)사업 부문 직원들에게 "흡연자들은 임원 승진, 해외 주재원 선발, 해외 지역 전문가 선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적 언급

은 하지 않았지만 흡연자는 사실상 임원 승진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DS 부문 전 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받고 팀장 등 보직을 맡은 간부들 중 흡연자에 대해서는 매달 흡연 여부 검사도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우선 DS 부문 직원들에게 해당되지만 앞으로 전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하나금융 호남 고객 초청행사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은 16일 광주시 서구 라미다호텔에서 호남지역 우수고객 및 지역경제단체 대표, 기업 CEO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정태 행장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호남지역 경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나은행제공)